

기미 윤은  
회사 (성)고문고문 장 이윤홍사

I N V I T A T I O N

# 서울경제 & 법무법인(유) 세종 공동 세미나

2024.3.19 (화) 15:00~16:30

장소 광화문 D타워 법무법인(유) 세종 23층

주최 서울경제 SHIN&KIM  
법무법인(유) 세종

## 70년 고인물 ‘배임’…변화할 때

형법이 제정된 지 올해 71주년을 앞두고 있습니다. 형법 시행 이후 ‘배임’은 각종 기업 및 임직원에 대한 수사에서 단골 메뉴로 등장하고 있고, 경제발전과 더불어 그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배임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란이 적지 않습니다. 그동안 화폐 단위(환→원)만을 바꾸는 단 한 차례 법 개정만이 이루어져, 시대적 변화를 반영치 못한 탓입니다. 전문가들은 경영 판단이라는 부분이 법적 판단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 등 그 기준이 모호하여 자칫 배임이 기업 성장의 발목을 잡는다고 지적합니다. 배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두고 ‘이현령 비현령(耳懸鈴 鼻懸鈴)’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5~2016년 경제계를 중심으로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적 판단’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등의 개정 의견이 제시되었고,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 되기도 했으나 여전히 근간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경제신문과 법무법인 세종은 자칫 ‘손톱 밑 가시’로 기업 경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배임에 대한 해석과 바른 변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세미나는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 △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한 법률 전문가 발표와 함께 배임에 대한 구체적인 법률 변화 방안과 해결책을 제시하는 Q&A 세션으로 구성됩니다.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됩니다. 세미나 내용은 녹화를 통해 법무법인 세종의 유튜브 채널에서 3월 22일(금) 공개됩니다.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아래 문의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 2024년 3월 19일(화) 15:00~16:30

| 장소 | 광화문 D타워 법무법인(유) 세종 23층 | 주최 | 서울경제·법무법인(유) 세종

### Program

| 사회 | 김태승 법무법인(유) 세종 변호사

15:00~15:10

#### 인사 말씀

**손동영** 서울경제신문 대표이사 사장

**문무일** 법무법인(유) 세종 대표 변호사(전 검찰총장)

15:10~15:50

#### 주제 발표

[주제1] **형법상 명확성의 원칙과 배임죄의 모호성**

**하태헌**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주제2] **배임죄가 M&A에 미치는 영향**

**정혜성** 법무법인(유) 세종 파트너 변호사

15:50~16:30

#### Q&A

기타 참고 사항

- 신청 접수 마감일 : 3월 18일(월)
- 문의처 : 서울경제신문 편집국 사회부 안현덕 법조전문기자
- e-mail=always@sedaily.com / 010-4727-0184